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금요일회 (밤) 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전(3부) 2시
저녁예배 7시30분
수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4년 8월 31일 (제757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02)533-9191 Fax.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032)763-9191 Fax.032)575-5730 http://www.jcc.tv/칠야주일에배워성및인터넷생방송



봉우 컬럼

하나님의 뜻을 알자

여보시오!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오. 난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 충성과 지혜인 줄 알았다고. 그러나 과로라는 솔직하지 못한 친구에게 속아 내 인생 길 앞에 도사리고 있던 늪에 빠져 허우적대며 오랜 세월 고생 끝에 깨달음... 무리와 과로, 조금은 최악, 무지의 소치란 걸 알았다고. 내 자량과 영웅심이란 안개 속 미혹의 영에게 속아 삶 속의 혼란 아닌 유혹에 빠져 링 위에서 한 대 맞고 별명..., 정신 잃고 누웠다 카운트 소리에 깨어보니 몸은 초죽음에 살 맛을 잃었다고.

여보시오! 내말 들어보소. 모든 일에 무리하지 말고 조급하지 마시게. 봄이 오라해도 때가 돼야 오고, 겨울이 가라해도 때가 돼야 갑니다. 범사에 때와 기한과 시기가 있으니 다시 노파심으로 말하는 것이오. 모든 일에 조급하지 말고 무리하지 마시게.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여보시오! 내말 들어보소! 속지 마시게. 체력이 영력이요, 지혜의 샘물이요, 영감의 산실이요. 그리고 체력이 기백과 패기, 용기, 담력의 용광로이고, 새로운 창의력, 상상력, 창조의 연구실이라오. 잊지 마시게! 난 알았다고.

여보시오! 내말 들어보소. 건강 잃으면 내가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 떠나며 병균도 날 놀이 삼는다고. 속지 마시게. 진리라오.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천하보다 귀한 것이 우리 육체라 하셨지 않았소? 좋은 금그릇, 은그릇도 금이 가면 못 쓴단 걸 기억하시게. 병들어 누우면 명예, 권력, 돈, 친구, 일가친지, 처자도 슬피 울며 '어리석은 분이여~~' 할 것일세. 그들이 땅을 치며 울지 않게 하시게.

남의 땅 기름지게 함도 좋지만 내가 서있는 땅부터 기름지게 함이 지혜라오.

여보시오! 모두를 사랑하기에~~

2014년 8월 25일 朋友

불은 불이 불어야 불이다

지난주일 영상예배를 통해 은혜를 나누는 서울 4부예배 임마누엘 성가대장 김정태 장로의 간증은 식어버린 우리의 심령에 강한 불꽃으로 화염을 일으켰다.

“불은 불이 불지 않으면 불이 아닙니다. 불이 붙어 타올라야 불의 존재 의의가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도한 영혼이 교회에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목사, 장로, 권사는 계급이 아니라 기능입니다. 따라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왜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목사가 목을 내놓지 않고 재산을 내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 JESUS'라고 쓰인 티셔츠를 입고 무리 지어 나가니 많은 시민들이 바라보며 관심을 보였고, 시청광장에서는 언론사들이 인터뷰를 요청하며 관심을 표했다. 젊은이들이 자원적인 자세로 전도에 나서는 모습 또한 아름답지만, 아직 부모님들에게 용돈을 받아줄 학생들이 힘을 모아 전도용 물휴지 2만장을 주문하고, 이제 사회에 첫발을 디딘 사회초년생 청년 직장인들이 10만원, 100만원 주머니를 털어 전도비용 및 홍보물 주문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젊은 세대, 남북통일에 대해 이산세대보다 그 절실함에 있어 부족하지 않을까 염려했던 우리 젊

하고자 한다. 이념으로 갈리고,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 깊어져버린 골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다른 누가 아닌 바로 우리부터 진심의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이번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리는 평화통일 기도성회는 이 땅에 동서남북으로 갈린 상처를 치유하고 예수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분명한 단초가 되리라 확신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시작하게 하신 역사이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빌2:13).



전도의 불이 붙은 젊은이들(서울시청광장)

마치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에서 뿔어져 나오는 강한 에너지를 보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거침없는 질타는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릴 평화통일 기도성회와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릴 서울전도집회를 앞두고도 잠잠하던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불을 붙이고 말았다.

전도용으로 제작된 물휴지 주문량이 하루 사이 20만장을 돌파했고, 예배 후 즉시 시청광장을 비롯한 도심 일대로 나간 대학생들은 ‘남북통일이 가능한가?’라는 길거리 설문조사 이벤트를 벌이며 대대적인 성회 홍보에 들어갔다. 남북통일의 가능성에 대해 찬반을 묻는 이벤트는 매우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홍보 전략이었다. 가슴에 ‘우리소원 평화통

은 세대들이 남북의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이번 성회를 위해 저렇듯 열심히 나서고 있다는 자체가 매우 고무적이고, 바로 이번 평화통일 기도성회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 계획 진행되고 있음의 반증이라 확신한다.

지난 해 부천과 잠실 성회를 통하여 우리 중장년 및 노년 세대가 국가와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 후손들에게 평화롭고 아름다운 강산을 물려주자는 진심을 보이자 이제 우리 젊은 세대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진심의 기도는 세대 간의 골도 얼마든지 메우고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진심을 가지고 기도

불이 붙었다. 불이 붙었으면 무엇을 더 바라겠냐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말씀하셨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서울시청광장에서 비롯된 이 기도의 불, 전도의 불, 부흥의 불이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교계를 깨우고,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깨우는 대 부흥의 역사로, 평화통일의 역사로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한다. 9월 8일 추석날 오후 3시 가자! 서울시청광장으로! 평화통일 기도성회로!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남북통일 찬반 설문조사(서울시청광장)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제작된 성회 홍보용 명함



홍보용 물티슈로 전철에서 전도하는 젊은이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전3:1~11)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천하에 법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 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매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전3:1~8).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이 기한과 때는 다 하나님의 소관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뤄지는 것입니다. 자연도, 인생도 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피고, 지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 결과는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전3:11). 꿈의 사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시기하던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린 요셉은 우여곡절 끝에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는 거기서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 가정총무로 집의 모든 것을 관할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청년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유혹합니다.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치나 보디발 아내의 위증으로 결국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던 중 감옥에 바로의 술 말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전제군주의 노여움을 사서 옥에 들어온 듯 합니다.

바람이 불 때 연을 날리고 물결을 보고 노를 저어라

어느 날, 요셉이 그들을 보니 두 관원장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이에 요셉이 왜 그런가 물었더니 그들이 꿈 얘기를 합니다. 먼저 술 말은 관원장이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창40:9~11)고 꿈 얘기를 합니다. 요셉은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에 술 말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게 되리이다”(창40:12~13)라고 해몽해 줍니다. 그리고는 술관장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득의하거든 나를 생각

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창40:14~15). 감옥에서 나가 권위가 회복되면 자기 좀 꺼내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물론 술 관장은 ‘알았다. 걱정 마라. 내가 꼭 꺼내 줄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를 곁에서 지켜보던 떡 관장도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했고, 요셉은 이렇게 해몽해줍니다.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꿇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창40:18~19).

사흘 후는 바로의 탄일이었습니다. 이날 요

의 해몽대로 술 관장은 전직이 회복되었고, 떡 관장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술 관

장은 요셉의 부탁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무려 2년 동안이나. 23절에 “술 말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고 쓰여 있습니다. 요셉은 오늘일까, 내일일까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데 술 관장은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저 살기 바빠 히브리 청년을 아예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로가 한 꿈을 꾸었는데, 이를 해몽하지 못하자 그 때서야 술 관장이 지난날 자기 꿈을 해몽해준 요셉을 기억하고는 그를 왕 앞에 세웁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몽해준은 물론 해결방안까지 알려줌으로 애굽의 총리대신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볼 것이 있습니다. 만일 술 관장이 복직되자마자 요셉의 말을 기억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아마도 기껏해야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 술 관장 밑에서 일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지긋지긋한 애굽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겠지

요. 엄감생신 애굽의 총리대신이 될 꿈이나 꾸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술 관장이 요셉을 잊게 하셨고, 가장 적기에 다시 기억나게 하사 요셉이 애굽의 총리대신이 되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비닐하우스에서 가꾼 과일보다 제철 과일이 맛있는 것처럼, 억지로 피워 일찍 핀 꽃보다 제철에 피는 꽃이 오래 피어 있는 것처럼, 제 때여야 일이 순조롭고 잘 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개는 아하수에로 왕 때 궁의 문지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만에게 부복하지 않았습니다. 재상이 된 하만은 이런

모르드개를 얹애고 이참에 유대인을 멸절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이를 안 모르드개가 왕 후인 에스더

를 움직여 이를 대처하게 합니다. 한편 그 밤에 왕은 잠이 오지 않아 지난 역대일기를 읽게 했습니다. 그러다 그 속에 기록된 모르드개의 업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두 내시가 왕을 모살하려던 사실을 문지기였던 모르드개가 고발하여 왕의 목숨을 건진 일이었습니다. 이 일에 아무런 포상이 없었음을 알고는 왕은 그것도 원수 하만을 들어 모르드개를 높였습니다.

만일 말입니다. 모르드개에게 즉각적으로 포상이 있었다면 감히 왕의 다음 자리에까지 오르지는 못했을 겁니다. 땅을 받았든지, 몇 단계 높은 관직을 얻었겠지요. 물론 하만에게 멋진 역전승을 거두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즉시 포상이 없게 하신 것도, 그날 밤 왕을 잠 못 들게 한 것도 다 하나님의 때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1992년 6월 7일, 우리는 메인스타디움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우리는 1991년 12월 25일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때였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인 6월 7일에 했더니, 김정태 장로의 말대로 비둘기도 한참을 날만큼 넓은 그 운동장을 다 채우는 놀라운 일을 이뤄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정한 때에 했다면 과연 이러한 역사를 이뤄냈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5월 20일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스타가 되고 싶으면 감독의 말을 들어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희생자들을 위한 합동분향소가 시청 앞에 세워지는 바람에 우리의 일이 연기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가장 좋은 날을 달라고, 곧 하나님의 때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9월 8일 추석날로 결정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말합니다. “왜 하필 추석날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하십니까?”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 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들은 가족과 즐기고, 더는 조상에게 절하는 그 추석날에 우리가 모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날, 최고의 명절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평화의 때요,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다 같이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를 위해 기도하고, 거리로 나가 홍보해야 할 때입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이 9월 8일 시청 앞으로 모여들도록 해야 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평화통일 기도성회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길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을 쌓을 수 있는 때를 허락하신 것이니 이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9월 8일 평화통일 기도성회는 성공적으로 치러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5000원)
(060)700-0688

은행계좌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 예수중심교회



새로운 동참 의식이 필요하다

십 수 년 전 월드컵 경기가 한국에서 열렸던 그 당시가 불현듯 기억이 난다.

입시전쟁에 몰두하던 고3 학생들이 어느 날, 모조리 수업 시간에 불참했다. 이유인즉 시청 앞 광장에서 붉은 티셔츠를 입고 대한민국 축구단을 응원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지금이야 우리나라의 축구 응원 열기는 세상이 다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때는 그와 같은 광경이 생소했고 낯설었던 시절이었다. 아이들은 밤을 새고 응원을 하며 월드컵 열기에 도취되어 우리나라 경기가 없는 날에도 경기장과 대형 스크린이 열리는 곳을 쫓아다녔다. 그 후, 아이들은 다시 입시 모드로 돌아가기 위해 많은 고충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고백했었지만, 그 응원의 현장에서 우리나라와 민족의 존재를 어렵듯이 느끼며, 응원의 열기속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처음으로 가슴 뻐근하게 눈물을 흘렸다고 입을 모았다.

요즘 세상은 극단적인 개인주의 성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필요한 순간이 되면 다시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다. 때로는 '우리'라는 이름을 악용해 상업적 혹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그런 이벤트들의 근처에는 '우리'를 지향하는 개인들의 열망이 담겨 있음을 안다.

이제, 우리는 눈을 돌려야 한다. 스포츠 행사나 이벤트를 통해 순간적으로 형성되는 '우리'에서 벗어나 진정한 '우리'를 깨닫고 자각할 수 있는 소중한 거국적인 모임

이 무엇인지 찾아 나서야 한다. 상업성이나 정치색을 띄지 않으며, 지역의 특성화를 나타내지도 않는, 참된 '우리'가 되기 위한 범국민적인 자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국방의 의무를 당연히 여기고, 분단이라는 현실에 무감각해짐과 동시에 남북이 서로 원망과 시비로 혈투를 벌여 생각 없이 받아들인다. 더 이상 그런 무감각한 상태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러니 이제, 준비된 장소로 가자. 붉은 물결이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바로 그 장소에서 우리는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한 십자군이 되어야 한다. 오래 전, 응원을 위한 합성이 우리의 민족의식을 고취시켰었던 것처럼, 9월 8일, 시청 앞 광장 집회에서 국가와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다시금 그 열정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여줄 때가 되었다.

미스바 성회에서 사무엘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번 성회를 준비하며 금식을 선포하고 우상을 버리고 정성을 다해 예물을 준비하자. 그리고 온 맘과 뜻을 다해 그 곳으로 모이자.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애통하고 회개하며 주님께 부르짖을 때, 통일을 위한 우리의 기도와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33:3).

오자유

ovelyactor@naver.com

9.8 평화통일 기도성회



나라에
위기가 왔을 때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이자 서울시청광장으로!!!

::교단소식::

파라과이에 사랑을 보냅니다!



파라과이 예수중심교회는 출석성도 2,500명을 돌파하며 파라과이 최대교회로 우뚝 서고 있다. 올해 시내중심가로 교회 처소를 옮겨 파라과이 예수중심교회는 더욱 부흥에 매진하고 있다. 그 초석은 153구제운동에 있다.

파라과이 예수중심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현숙 선교사는 '자식은 부모에게 달랠 권한이 있다'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 선교사는 지난 아르헨티나 집회를 위해 방문한 총회장 목사님에게 각종 악기를 포함한 구호물자를 요청했다. 이에 총회장 목사님은 이를 광고하셨고, 성도들의 적극적인 동참에 힘입어 지난 8월 21일 선적을 마쳤다. 옷가지 579box와 악기로 전자 피아노, 키보드, 드럼 세트 등 40피트 컨

테이너에 정성과 사랑까지 얹어 실어 보냈다.

파라과이 예수중심교회에는 이미 네 차레나 대규모 구호물자를 지원한 바 있다. 파라과이에서는 우리가 보내준 구제물품의 수령을 위해 파라과이 정부가 나서서 도움을 주고 있다. 부산항에서 출발한 컨테이너선은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 도착한다. 구제물품의 입국심사 및 육로운송에 파라과이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작은 사랑이 그들에게는 큰 기쁨을 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153구제운동을 멈출 수 없다.

늘 느끼고 공감하는 성경말씀이 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는 말씀이다. 돈을 벌기에만 급급했던 록펠러, 그는 55세에 병이 들어 시한부선고를 받고 병원을 나서다가 액자에 쓰인 글귀를 발견한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록펠러는 그 글귀를 읽고 전율을 느꼈다. 그리고 병원 문을 나서다가 입원비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어느 소녀를 아무도 모르듯 돕는다. 그리고 난 후 그의 고백이다. "나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일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 후로 병이 사라졌고, 여생을 나눔의 삶을 살다 갔다.

목사님은 자주 말씀하십니다. '부자로 살 것인가, 부자로 죽은 것인가?' 자신의 것을 나눠 많은 사람을 살리고 빈손으로 갈 것인가,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 축적해놓고 갈 것인가?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우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해야 할 일인 줄은 안다. 다만 실천하기가 어려울 뿐. 그러나 알 것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회생시키지도, 손해 보게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잠11:25). 한 마디로 구제는 영적 보험인 셈이다.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받은 파라과이 예수중심교인들의 밝은 얼굴이 눈에 아른거린다.

이 지면을 빌어 153구제운동에 동참해준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과 내세에서 넘치도록 보상해주시리라.

신영서

jesus7857@hanmail.net



귀를 기울이세요

어려서부터 성경 구절을 한번 들으면 줄줄 외울 정도로 총명했던 유관순 열사는 1915년 봄, 한 미국인 여자 선교사의 주선으로 이화학당에 들어갔고, 서구의 신학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학교 근처에 있는 정동교회에 다니며 신앙심을 키우고, 틈나는 대로 조국과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그녀의 믿음은 훗날 일제의 모진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19세의 꽃다운 나이에 순국할 수 있었던 정신적 바탕이 되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문의 발표로 시작된 3·1 운동은 2천만 민중의 하나 된 외침이었습니다. 이 날 유관순은 동료 학생들과 함께 결사대를 조직하여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는데, 이 때 만류하던 교장선생님을 뿌리치고 학교 담을 넘어 탑골공원까지 나가 만세를 부르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후 고향 방천으로 내려가 전국 곳곳의 교회학교를 찾다다녀 학생들의 독립운동을 주도한 유관순은 4월 1일, 아우내 장터에서 3천여 명의 군중을 이끌고 만세운동을 하며 거리를 행진하다가 일본 헌병들에게 체포됩니다. 그녀는 서대문형무소 수감 중에도 독립만세를 부르며 옥중 동료들을 격려했고, 그때마다 매질과 고문을 당했으나 끝내 자주 독립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관순 열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조국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여,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평화통일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신혁주 전도사

blessedmic@naver.com

Jesus Centered International Unity

평화통일 기도성회

Prayer Assembly for Peaceful Unification

9월 8일(추석) 오후3시
가짜! 서울시청광장으로